

# 도시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공원복지 활성화전략 -부산도시공원 이용자를 중심으로- Welfare Activation Strategy for a Urban Park Users

김교정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yo-Jung Kim(iwtbp@hanmail.net)

## 요약

부산 도시공원의 시설과 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토대로 공원복지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각 개별 도시공원의 전략적 발전방안 제시가 본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평판법에 의해 추천된 부산시 7개 도시공원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도시공원 이용형태와 시설 및 콘텐츠의 공원복지수준의 IPA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 도시공원 이용자의 공원복지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용도와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공원 선행연구들과 유사하게 공원복지 시설 중 편의시설이 집중관리 항목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이라는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도시공원이라는 유형이라 할지라도 주 이용자와 소재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집중 영역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정된 두 가지 연구문제에서 제기된 유의미한 차이가 모두 인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도시공원 운영에 있어서 이용객들의 공원복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유형의 도시공원이라 할지라도 집중관리영역의 차이를 공원복지적 관점에서 경험적인 검증을 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시민참여와 지역네트워크의 새로운 공원운영 매커니즘인 컨저번시가 공원복지 성과의 가속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공원복지 | 공원시설 | 공원콘텐츠 | IPA | 컨저번시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welfare in the park through the empirical test on the park facilities, which are the hardware, and the service contents, which are the software, in the urban parks of Busan. Therefore, to identify the welfare of the parks in Busan, this study took 7 urban parks as samples according to the plate method of experts, and conducted the questionnaire survey from 1,500 persons using these parks. The IPA analysis results on the importance and the satisfaction of the users on the form of use, facilities and the contents of the park are as follows. First, the convenient facilities, which are the hardware of the park, are represented as a intensive management item. Second, the importance and the satisfaction for all the facilities and the contents of each park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each park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incipal park users. Such results mean that the Busan urban park operation does not satisfy the expectation of the park users for the welfare facilities in the parks. Therefore, it implies that to activate the urban parks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an the present, the accessibility of the local residents to the information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ntents to reflect the region and the desires of the users and through building and managing the homepage of the urban parks.

■ keyword : | Welfare in the Park | Park Facilities | Park Content | IPA | Conservancy |

## 1. 서론

본 연구는 도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여가복지 공간인 공원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가지는 중요도와 이용 후 만족도는 어떤 수준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산도시공원 이용자의 공원복지성을 전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의 구축하고자 한다.

공원복지의 중요성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의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부터라 볼 수 있다. 특히 시민 여가생활에 대한 양적, 질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특히 고령사회의 노인 여가공간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원복지의 관심은 대상과 초점이 제한적이었다. 단지 사회적 약자인 노인·장애인·여성을 위한 물리적 시설개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성 연구들이 주요하게 진행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공원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공원운영 및 관리의 효율적, 효과적 방법으로 도시민의 여가문화 복지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콘텐츠의 연구가 되기에 이른다. 또한 시민참여의 방법으로서 자원봉사활동 및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시범시행으로 초점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1].

도시의 개방공간(Open space)인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여가활동 수요를 만족시키며 도시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민들 웰빙적인 삶의 객관적, 주관적 활력소로서 작용하고 있다[2]. 현재 우리나라의 도심 공간 내에는 도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인 공원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 많은 국가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심 내 혹은 인근에 공원과 녹지공간을 배치하여 개발하였다. 특히 현대사회는 웰빙(Well-being)을 모티브로 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 5일근무제도의 확산으로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가활동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즐길거리의 요소와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원은 시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공을 위한 공간이며, 숲과 자연을 접하는 가운데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를 주는

힘을 갖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선진공원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또는 개인적인 취미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시작했고, ‘시민참여’와 ‘자원봉사’라는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원은 젊은이들의 자발적 인라인 동호회 활동공간으로서, 공원을 지키고 가꾸는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로 공원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등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3-5]. 국내 역시 이와 같은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공원의 공간과 시설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지역주민들의 단순이용이 아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의 경우 공원 내 정기적 축제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은퇴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원놀이지도사’ 등의 시범적 사례를 개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정이전의 도시공원법에 없던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과 기존의 묘지공원, 체육공원을 포함해 주제공원을 신설하고 있어, 주민들은 다양한 도시공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도시전역을 유치권으로 하는 공원은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원중심형 여가활동장소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운동, 체험, 교육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6].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연환경 개선과 공간제공이라는 도시공원의 조성목적 선진사례들과는 큰 차이를 가진다. 뉴욕 센트럴파크,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의 사례에 비해서는 시민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의 복지성은 상대적으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7]. 공원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생태중심의 제한적 성격에 국한되어 있거나 거의 없는 형편이다. 축제형식의 행사 역시 다양한 장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에게는 공원의 ‘공공성’ 명분으로 여러 가지 제제와 신청의 까다로움, 일부 사용료지급 등의 이용과정 자체의 접근장벽이 외국의 선진사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8].

도시공원 이용주민의 수와 복지성을 갖춘 시설 및 콘텐츠에 대한 욕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산은 공원복지에 대한 기본조사마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시민들의 복지의 공간으로서 공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원 요소들에 대한 이용행태와 공원복지성을 함께 조사하였다.

## 2. 선행연구검토

### 1) 부산 도시공원의 현황

부산의 계획된 공원은 총 858개소, 58.273km<sup>2</sup>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중 371개만이 조성완료가 되었으며, 37개의 경우 조성 중 그리고 나머지는 450개소는 아직도 미조성의 상황이다.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2개가 계획중이지만 아직 미조성이며, 수변공원의 경우 아직 조성완료된 공원은 한 개소도 없다. 현재 부산시는 특·광역시 중 공원 조성률 5위, 1인당 공원면적의 경우 7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도시공원율의 획기적인 확충 방안이 추진되고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하드웨어인 공간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기존공간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접근성 향상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부산시는 공원 녹지 민관협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APEC 나루공원에 그린큐브를 개소하였고 공원활동가 양성사업, 도심 속 자투리공간 등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녹지공간의 확충, 우리 동네 쌈지공원 조성,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녹지 이용프로그래프로 공원생태탐방 '나무야 놀자' 등 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콘텐츠 구성과 활용에 있어서 공공중심의 확립적 기획 및 전문가 중심의 기획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이용욕구는 강하지만 아직까지 도시공원내에서의 콘텐츠에 이용경험과 그에 따른 만족경험등의 부족에서 기인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 부산의 공원 현황 (단위 km<sup>2</sup>)

구분	계획		조성 완료		조성중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소계	858	58.2	371	19.2	37	13.2
도시자연	2	7.6	-	-	-	-
근린	157	42.5	69	17.2	23	10.6
문화	5	0.02	1	0.01	-	-
수변	11	2.8	-	-	5	2.3
체육	7	2.2	2	0.01	-	-
묘지	6	1.6	5	1.3	1	0.2
어린이	483	1.1	287	0.5	3	0.01
소공원	187	0.3	7	0.01	5	0.01

2012년 부산광역시 내부 자료

### 2) 공원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을 도시공원이라 정의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제도적 규정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을 사회적 약자부터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웰빙시설의 의미와 여가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지공간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결국 공원복지란 모든 이용자가 공원을 이용하는데 편안한 상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편안함의 상태는 이용자들마다 차이가 있다. 도시계획, 관광, 조경 등 각 학문분야에서는 매력도, 활용도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1][9]. 그렇다면 공원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가지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시설과 콘텐츠이다. 공원의 시설과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개인적 중요도와 이용 후 만족도의 차이를 공원복지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1].

복지공간으로 공원의 발전과 연구는 최근에 와서이다. 1990년대 공급자, 전문가 중심의 공원설계와 기획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점차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고 있는 물리적 시설의 개선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연구의 대상이 국립공원이지만 관리운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오홍진(2009), 관리자의 친절 및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동필(2009), 장소의 목적성 강조를 통한 공원 내 콘텐츠로서 공원과 관련된 법제를 연구한 이성호외(2011), 공원에 대한 사회적약

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원사인디자인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법체계 안에서 공원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조성되어 왔다면 최근 지역의 특성과 이용자들의 이용형태에 기반하는 시설 개선을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1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시설물 위주의 계획과 이용자 욕구 반영 없는 설계로는 공원복지를 향상시킬 수 없는 동시에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원의 활성화 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원의 이용 촉진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시설 그리고 서비스 및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필요한 기준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회적·심리적·물리적인 원칙을 도출하여 도시공원 설계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대상지에 적용하여 설계해 봄으로써 향후 공원 설계시 개선방안연구도 최근 공원복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13].

공원에서 프로그램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공간배치의 복지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14] 또한 유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연령대별 특성, 방문객의 지식수준 등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경험적 연구조사를 토대로 제시하였다[15].

### 3) 이용자의 공원복지 IPA 선행연구

다음 [표 2]에서 공원복지에 대한 IPA 선행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대상과 지역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원복지의 집중관리 영역으로서 각 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휴게시설 및 조경·수경시설, 산책로,, 체육시설 등 하드웨어적 시설자체에 대한 집중관리 영역으로 논의되었다[16][17].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각각의 시설에 보다는 이러한 시설이 공간적으로 배치된 공원의 쾌적성, 접근성, 환경성 등을 항목으로 구성되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관리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18][19]. 또한 콘텐츠의 충분성과 교육성, 체험성 등으로 ‘공원복지’의 수준이 실증적으로 연구되었다[20].

이지연(2002)의 연구에서의 집중관리영역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의 노력과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을 제시하였다. 강영애(2001)의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격차를 매력도라 정의하고 생태프로그램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성’과 ‘체험성’을 갖춘 프로그램 기획과 피드백을 강조하여 공원프로그램 기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임수원 외(2009)의 연구에서는 집중관리영역의 체육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 발전방안과 함께 기존 공원정책과의 연계성이 논의되었다.

표 2. 공원 중요도-성취도 IPA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대상(지역)	집중관리영역
이지연 (2012)	도시공원(서울)	공원 내 편의시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제공
강영애(2011)	국립공원(전국)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교육내용의 흥미성, 프로그램의 매력성, 프로그램시간의 적절성, 편의시설
임수원·구회곤·이혁기 (2009)	수변공원(대구)	자전거접근 및 거차용이, 유아 및 어르신 장애인의 접근용이성, 체육시설주변 부대시설구비,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이용편리성, 조용한분위기, 부대시설의 청결상태, 안전시설설치, 야간활동조명상태, 안전요원의 방법활동
최정우 (2009)	수변공원(서울)	조경,편의,관리시설
김대원 (2008)	도시공원 3곳 (김해시)	놀이시설과 경관건축물
이영경 (2008)	국립공원 3지구 (경주)	자연학습기회, 계곡과 수질관리

## 3. 연구방법 및 결과

###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공원복지 수준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첫째, 부산도시공원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부산도시공원 각 공원별 집중관리영역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부산의 공원복지수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연구는 김대원(2008)의 김해시 도시공원 연구를 제

외하고는 전무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산 도시공원이 사용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서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하는 중요도와 이용 후 느끼는 공원복지수준에 대한 기술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는 상정한 연구문제의 경험적 검증을 위하여 공원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항목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구성항목들을 기본항목들로 구성하고 7개 도시공원의 공원복지수준을 공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 항목을 추출하고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시공원 전문가 2인, 사회복지 전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확인 받았다. 이후 예비조사 자료에 대한 내적신뢰도를 통해서 문항을 정비하였다. 도시공원의 공원복지를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11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추출된 항목이다.

대상공원의 선정은 각 도시공원 유형별로 조성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공원들 중 가장 이용자가 많다고 인정되는 7개의 공원을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전체적인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과 공원별 IPA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 분석은 시장에서 회사의 경쟁력 위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Martilla와 James(1997)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연구 방법이다[21]. IPA분석 기법은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기법인 SWOT분석과는 달리 전략적 개선책 찾아내는 데 유용하다. IPA분석은 중요성과 실행도의 속성별 비교 평가 값에 의하여 네 가지 다면적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 2) 연구결과

다음 [표 3]에서는 공원 이용자의 설문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공원 설문 대상은 총 8개의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는 것은 ‘이기대공원’으로 빈도는 234(21.50%)를 나타내고 있다. 설문시기는 ‘주말’의 항목에서 높은 응답률로 693(64.20%)가 나타났다.

표 3. 설문지역과 설문시기

문항	대상	빈도(유효%)
공원이름	강서체육공원	101(9.00)
	대천공원	164(15.10)
	수변공원	111(10.20)
	이기대공원	234(21.50)
	용두산공원	144(13.20)
	초읍 어린이대공원	187(17.20)
	평화공원	145(13.30)
설문시기	기타	41(3.90)
	주중	386(35.80)
	주말	693(64.20)

다음 [표 4]는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전체 응답자중 남성이 51.6%, 연령대로는 20대로서 24.6%, 이용자의 거주지는 도보 10분 내외의 공원인근이 29.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응답자의 이용특성

문항	대상	빈도(유효%)
성별	남성	584(51.6)
	여성	547(48.4)
연령대	10대	167(14.7)
	20대	279(24.6)
	30대	200(17.6)
	40대	194(17.1)
	50대	168(14.8)
	60대	73(6.4)
	70대 이상	53(4.7)
거주지	공원 인근(도보 10분내외)	335(29.60)
	소재 구 관내	316(27.90)
	소재 구 주변지역	282(24.90)
교통수단	타 지역	200(17.70)
	도보	432(38.30)
	자전거	58(5.10)
	대중교통 수단	356(31.60)
	자가용	262(23.20)
	기타	20(1.80)

다음 [표 5]에서는 공원 이용자의 공원콘텐츠 인지에 대한 문항으로 ‘모른다’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 51.10%가 나타났다. 행사를 알게 된 계기의 문항에서는 ‘지나가다 우연히’의 항목이 25.60%, 행사종류는 ‘보통’ 56.80%가 각각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프로그램은 ‘문화행사’의 항목에서 25.60%, 내용만족의 문항에서는 ‘보통’의 항목이 14.10%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이용자의 콘텐츠 인지·계기·종류

문항	대상	빈도(유호%)
콘텐츠 인지	알고있다	312(27.90)
	모른다	571(51.10)
	관심없다	234(20.90)
콘텐츠 참여계기	집 근처이기 때문	200(21.70)
	주위 사람의 추천으로	136(14.80)
	시청, 광고서의 홍보	78(8.50)
	지나가다 우연히	236(25.60)
	인터넷을 통해	44(4.80)
	방송을 통해	28(3.00)
	기타	200(21.70)
행사종류	매우 다양	24(3.10)
	다양	105(13.50)
	보통	441(56.80)
	단순	151(19.50)
	매우 단순	55(7.10)
프로그램	공원 운영 주최 콘텐츠	99(15.30)
	각종 단체 주최 이벤트	159(24.50)
	문화행사(음악회, 전시회)	166(25.60)
	특정 목적의 집회 행사	41(6.30)
	자녀 유치원 학교 행사	39(6.00)
	기타	145(22.30)
내용만족	매우 불만족	18(1.60)
	불만족	48(4.20)
	보통	473(14.10)
	만족	112(9.70)
	매우 만족	19(1.70)

다음 [표 6]은 공원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와 동일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의 티검증의 결과표이다. 중요도에 비해서 모든 문항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부산 도시공원 이용자들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편의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프로그램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실제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가장 적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부산 공원복지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가 지자체와 공공단체 중심의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한 현실상황에 공원복지 콘텐츠에 대한 기대와 참여의 경험이 없어 중요도는 낮으나,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음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고 추측 할 수 있다.

표 6. 전체 대응표본 t검증

항목	중요도			만족도			t
	M	SD	순위	M	SD	순위	
주차장	3.95	.90	7	3.02	.90	10	24.876***
편의시설	4.26	.78	1	3.11	.92	7	32.421***
휴게시설	4.18	.79	3	3.26	.88	3	27.544***
놀이시설	3.94	.88	9	3.09	.86	9	23.697***
산책, 도로	4.22	.80	2	3.49	.90	1	22.445***
체육	3.99	.85	7	3.20	.88	5	23.342***
이벤트시설	3.78	.87	5	3.11	.84	7	20.638***
조경시설	4.02	.82	4	3.29	.88	2	22.208***
수경시설	3.89	.86	6	3.23	.89	4	19.365***
안내판	3.92	.86	10	3.19	.84	6	21.238***
프로그램	3.52	.03	10	3.02	.78	10	14.649***
크론바하알파	.866			.889			

이와 같은 중요도와 성취도 각각의 자료를 Y축과 X축으로 두고 각각의 평균선을 중심으로 2차적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현재 좋은 상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강점항목으로는 휴게시설, 산책공원도로, 체육시설, 조경시설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원내 휴게시설과 산책루트의 매력성은 이지연(2012)의 서울숲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인 2사분면에는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이는 이지연(2012)의 연구가 편의시설과 놀이체험공간에 대해서 이용객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실제적 만족도는 낮게 평가되어 개선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수변공원의 체육공원으로서 활성화를 위한 임수원외(2009)의 연구에서는 체육시설주변의 부대시설 구비와 야간사용에 대한 안정성이 집중적인 관리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 도시공원 연구에서 유지강화 영역에 나타난 분석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는 공원이용목적이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동일한 도시공원이라 할지라도 주요 목적이 휴식, 체육, 관광, 놀이, 체험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주요대상자에 따라서도 공원복지성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강공원의 5개 지구를 연구한 최정우(2009)의 연구와 시설적 측면에서 집중관리 영역이 유사하다. 지구별 지역특성과 주요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적 분석결과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만 시설중심의 물리적인 개선이 우선 요청된다는 측면에서 분석결과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강점으로 투자 및 집중도를 조절할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와 차이는 본 연구가 도시공원에서도 가족을 주요 이용자로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인, 관광지,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도시공원 유형의 공원복지성에 대한 평균으로 분석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족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운대구의 대천공원과 평화공원의 경우 공원의 이지연(2012)의 연구와 긴급하게 관리하는 영역이 동일하게 놀이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불필요한 강점영역으로 주차장, 놀이시설, 이벤트시설,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원내 단체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정우(2009)의 연구는 한강공원 전체로 분석결과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과잉투자항목으로 단체활동, 나머지 활동들은 저 우선순위 항목으로 분석결과 도출되었다.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원 콘텐츠를 조망, 단체, 수상활동 등으로 구성하여 과잉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상태 유지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의 시민공원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의 경우 과잉투자라는 말을 쓸정도의 콘텐츠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인을 포함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공원이라는 공간안에서 배움과 성장, 함께하는 복지점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저 우선순위로는 수경시설과 안내판의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공원의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무장애공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공원 안내판의 경우 투자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항목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과 콘텐츠에 대한 절대적 부족상황에서는 그나마 공원복지적 관점의 투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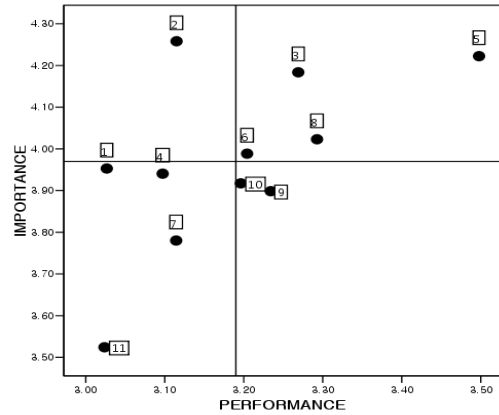


그림 2. 이용자의 중요도와 성취도 IPA 분석결과

다음 [표 7]은 공원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의 IPA분석의 결과이다. 각 공원별로 집중관리 항목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각 공원들의 주요이용자와 지역적 특성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7. 공원별 IPA분석

공원별	IPA 2분면	IPA 1분면
강서체육	1, 10	2, 3, 5, 6, 8
대천	7	2, 3, 5, 10
수변	1, 2, 3	5, 6, 8, 10
이기대	2, 3, 8, 10	5
용두산	2	3, 5, 6, 8, 9
초읍	4, 6	1, 2, 3, 5, 8, 9
평화	2, 4, 6, 9	3, 5, 8
강서체육	4, 7, 9, 11	-
대천	1, 3, 4, 6, 9, 11	-
수변	4, 7, 9, 11	-
이기대	1, 4, 6, 7, 9, 11	-
용두산	1, 11	7, 10
초읍	7, 10, 11	-
평화	1, 7, 10, 11	-
	IPA 3분면	IPA 4분면

강서체육공원에서 집중 관리해야 하는 2사분면에 위치하는 것으로는 주차장과 안내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수원의(2009)의 연구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영역으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원의(2009)의 연구의 경우 수변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인근지역주민들로 걸어서 이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기며, 따라서 차량의 접근용이성이 주차장은 큰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천공원이 그와 같은 동일한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강서체육공원의 위치적 특징이 다른 도시공원과는 다르게 주거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가까운 주거지로부터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주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은 정기적이기 보다는 지역주민들 이외 대규모 체육행사 등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에서 안내판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천공원은 이벤트 시설의 집중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대천공원은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공간으로 개별이용보다는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단위의 이벤트 및 체험교실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변공원의 경우는 평안리 위치하고 있어 부산관광명소인 회센터 등 대형 식당가와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공원이용자와 일반관광객들이 주차장 및 집중관리요청항목들을 공유하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판단된다. 이기대의 경우 편의, 휴게, 조경, 안내판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용자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도보로 공원을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주차장시설이 불필요한 강점항목에 위치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기대의 경우 산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원으로 인근지역주민들에게 가까운 등산로 및 산책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많지만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 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갈매길'이라는 공원 내 새로운 길들이 조성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안내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부산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용두산 공원은 편의시설로 나타났다. 이 공원의 경우, 방문목적이 다른 공원들의 주요한 이용목적인 산책이나 등산 및 운동 등의 목적과는 다르게 휴식 및 기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원의 주요 이용자가 대부분 65세 이상의 어르신인 많은 이유로 다른 시설보다는 공원시설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무료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읍 어린

이대공원은 놀이시설과 체육시설, 평화공원은 편의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수경시설로 나타났다. 두 공원 모두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이 많은 공원으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관리가 공통적으로 요청되었다.

집중도의 조절이 요구되는 3사분면에 조사공원 모두 공통적으로 위치한 항목의 경우,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하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공원이라는 아직까지는 공원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경험만족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부산 도시공원의 공원복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7개의 공원 이용자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 공원의 이용특성으로는 '20대', '주말', '3시간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둘째, 부산 도시공원의 시설물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산시 도시공원의 전체 IPA 분석결과 집중관리 영역인 2사분면에 편의시설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7개의 각 도시공원마다 집중관리 영역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부산시 도시공원 전체의 집중관리영역은 편의시설 넷째, 상정된 두 연구문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결과가 나타났다.

이지연(2012), 강영애(2011)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원복지 항목 중에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중요도가 높고 만족도가 낮아 집중관리영역인 제 2사분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편의시설은 동일한 제 2사분면, 콘텐츠의 경우 제 3사분면에 위치했다. 선행연구 대상지에서는 적어도 공원이용자들이 공원프로그램 대한 풍부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공원콘



텐츠에 대한 경험조차 없는 대다수 부산도시공원 이용자들은 그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각 공원 주요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각 공원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설문항목 구성에서도 각 공원의 공통적 항목들로만 조사를 진행해야 했으므로 하나의 공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들에서처럼 시설과 콘텐츠에 대하여 충분성, 교육성, 체험성, 접근성등 세분화된 비교 분석이 이뤄질 수 없었다. 또한 선진공원의 복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및 기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세부적인 항목들을 구성하지 못한 점등 몇 가지 한계와 후속연구의 과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복지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시설과 콘텐츠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현재 부산도시공원의 공원복지성이 얼마만큼의 수준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본 연구가 의의가 있다. 특히 공원콘텐츠의 선행연구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부산의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급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연구 대상지인 7개의 공원은 모두 공통적으로 도시공원이지만 IPA분석 결과, 집중관리영역과 투자조절영역이 개별공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도시공원, 국립공원, 수변공원 등 공원의 유형별로 공원복지성을 평균적으로 분석하여 제언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같은 도시공원 유형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각 공원마다 개별화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공원은 조성에서 끝이 아니라 조성이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유기체이다. 이러한 활동에 유형·무형의 자원들이 끊임없는 투입이 요구된다. 공원운영을 위한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투입을 위해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 선진공원은 컨저번시(conservancy)라는 새로운 운영매커니즘을 선택하였다. [부산시민공원] 조성중인 부산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시민들의 웰빙공간으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욕구는 계속 높아질 것이며 엄청난 공공예산의 투입이 예측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공원에 대한 이용자의 공원

복지성 향상방안과 함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와 기부를 동인할 수 있는 공원 운영 매커니즘의 변화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하야리아공원포럼, 부산의 꿈, 미세움, 2011.
- [2] 김용운, 도시민의 공원이용행태가 공원만족도 및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3] <http://www.millenniumpark.org>
- [4] <http://parks.seoul.go.kr/seoulforest>
- [5] <http://worldcuppark.seoul.go.kr>
- [6] 김현장, 수변형 공원녹지에 대한 이용행태 및 시민의식 조사 : 대구광역시 봉무공원과 수성유원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7] <http://www.centralpark.org>
- [8] 이성호, “체육공원내의 야외공연장 건립에 관한 법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211-224, 2012.
- [9] 김준규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11.
- [10] 오홍진, “북한산 국립공원의 가치보전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5호, pp.293-303, 2009.
- [11] 김동필,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탐방객 만족요인 및 예측모형 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제23권, pp.169-176, 2009.
- [12] 심준영, “공공서비스로서 신·구도심지의 공원만족도 차이”,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0권, pp.481-491, 2009.
- [13] 최은경,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원설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송파구 오금공원을 대상으로, 서울시立大學校 都市科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0.
- [14] 조의영, “관광객 요구분석에 따른 복합자연공원 개발방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제6권, 제11호,

pp.85-94, 2006.

- [15] 조계중, “해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월악산 국립공원에서의 방문객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1권, pp.1-9, 2007.
- [16] 이지연, 서울숲 방문수요 결정요인 분석,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7] 강영애, “IPA를 이용한 국립공원 생태관광프로그램의 매력성 분석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觀光研究論叢, 제23권, pp.147-168, 2011.
- [18] 임수원, “IPA기법을 통한 스포츠평간으로서의 수변공원 활성화 전략 : 현재와 전망 -대구광역시 신천둔치수변공원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8권, pp.213-222, 2009.
- [19] 김대원, 도시 산지형 공원 이용행태와 이용만족요인 : 김해시를 사례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0] 이영경, “경주 국립공원의 이용만족도 평가”,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2권, pp.1-10, 2008.
- [21] J. A. Martilla and J. C. Jame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41, No.1, pp.77-79, 1997.
- [22] E. Hammit and D. Bixer, "Francis, P. Going beyond Important - Performance Analysis to Analyze the Observance Influence of Park Impact.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Vol.14, No.1, pp.45-62, 1996.

저자 소개

김 교 정(Gyo-Jung Kim)

중신회원



- 2005년 8월 :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공원과 복지, 사회서비스, 사회공헌, 노인여가복지, 사회복지네트워크, 이터닝 콘텐츠